

이사야 56-59에 나타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

주해적 접근을 통한 의미 해석*

Justice(צדקה) and Righteousness(קדושה) in Isaiah 56-59:
An Exegetical Approach to the Meaning

이희성 박사 (Lee, Hee-Sung)

충신 대학원 강사 (구약학)



본 논문은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란 용어가 이사야서 56-59장에서 어떤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탐구하고 그 신학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한 성경 신학 운동(1940-1960년)의 영향으로 단어의 어원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낳았다. 따라서 성경 단어 연구에 있어서 통시적인 연구 보다는 공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각 단어가 위치한 문맥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사야 56-59장에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는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나타내며 발전되고 있다. 이사야 56:1-8에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은 안식일 준수로 나타나는 언약적 책임에 충실한 삶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언약적 책임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קדושה)과 קדושה의 병치

배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사야 56:9-57:21에서 나타난 מִשְׁפָּט 란 용어는 문맥 안에서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에 대한 신랄한 풍자이다(57:12). 이사야 58장에서 사용된 מִשְׁפָּט 는 백성들이 외식적으로 행하는 제의적 규례를 의미하고(2절) צְדָקָה 는 참금식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의미한다(8절). 이사야 59장은 מִשְׁפָּט 와 צְדָקָה 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מִשְׁפָּט 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한 삶(8절), 하나님의 구원(9, 11, 14 - מִשְׁפָּט 와 함께, 15, 16, 17절)을 의미한다. 특히 צְדָקָה 는 구원(צְדָקָה)이란 용어와 병치배열을 통하여 구원적인 뉘앙스를 주로 나타낸다. 즉 정의(צְדָקָה)와 공의(מִשְׁפָּט)란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 인간의 실천적 행위를 의미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가 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학이 정의(צְדָקָה)와 공의(מִשְׁפָּט)란 용어의 의미 전개를 통하여 드러난다.

정의(צְדָקָה)와 공의(מִשְׁפָּט)란 용어는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읽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를 통하여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제어: 정의, 공의, 구원, 의미장, 이사야, 병치배열, 문맥적 의미, 의미적 뉘앙스

1. 들어가는 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신학적 주제를 발전시키면서 정의(צְדָקָה)와 공의(מִשְׁפָּט)란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두 단어는 각 본문에서 여러 의미적 뉘앙스를 나타낸다. 이 두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론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¹

¹ Henning Graf Reventlow and Yair Hoffman, 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JSOT Press, 1992). 특히 Moshe Weinfeld는 고대 근동의 문서에 나타난 이 용어들의 사용과 구약과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Justice and Righteousness’ - מִשְׁפָּט ו- צְדָקָה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228-46); Osborne Booth, “The Semantic Development of the Term *mišpāt* in the Old Testament,” *JBL* (1942): 105-10; G. von Rad, “Faith Reckoned as Righteousness,”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London: SCM

최근에는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이 두 용어의 기능에 대해 주로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와 책의 형성 과정(the process of formation)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² 그러나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ה)란 두 용어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적 뉘앙스(semantic nuance)의 변화를 가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주해적 연구(특히 문예적, 신학적 문맥을 고려한 접근)는 다소 미비한 가운데 있다. 따라서 본 소고는 이사야 56-59장을 중심으로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ה)란 두 용어의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본문의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본 소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ה)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원리를 다룰 것이다. 둘째, 이사야 1-39장과 40-55장에서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ה)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사야 56-59장에 나타난 정의(צדקה)와 공의(תקנה)의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와 신학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Press, 1984), 125-30; idem, “‘Righteousness’ and ‘Life’ in the cultic Language of the Psalms,”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243-66; O. Booth, “The Semantic Development of the Term *Mishpat* in the Old Testament,” *JBL* 61 (1942): 105-10; J. W. Olley, “Notes on Isaiah XXXII 1, XLV 19, 23 and LXXIII 1,” *VT* 33(1983): 446-53; Gregory J. Polan,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New York: Peter Lang, 1986); Daniel Kendall, “The Use of *Mishpat* in Isaiah 59,” *ZAW* 96 (1984): 391-405; C. F. Whitely, “Deutero-Isaiah’s Interpretation of *šedeq*,” *VT* 22 (1972): 469-75; Pietro Bovati, *Re-Establishing Justice: Legal Terms, Concepts and Procedures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05; Sheffield: JSOT Press, 1994).

² J. J. Scullion, “*šedeq-šedāqah* in Isaiah cc. 40-66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tinuity in Meaning Between Second and Third Isaiah,” *UF* 3 (1971): 335-48; John N. Oswalt, “Righteousness in Isaiah Chapters 55-66,” in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eds., G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Leiden; New York: Brill, 1997), 177-91; R. Rendtorff,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and ed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46-69; idem, “Isaiah 56:1 as a Key to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181-89; Mark Gray,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2006); Thomas L. Leclerc,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2001).

2. 방법론적인 고찰

194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까지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성경 신학 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의 영향으로 히브리어 언어 구조(Hebrew language structure)와 함께 단어 의미가 성경 저자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수면위에 떠올랐다.³ 특히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단어의 어원적 분해(etymological analysis)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경 단어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⁴ 이들은 “한 단어의 원래의(어원적) 의미가 바로 그 단어의 의미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견해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임스 바르(James Barr)가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단어 연구 방법론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를 토한 유발시켰다.⁵ 왜냐하면 비록 한 단어가 그 어원이 제시하는 바를 의미한다 할 지라도 성경의 저자가 그 단어를 한 본문에서 사용할 때는 그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항상 그대로 사용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단어 개념의 오류).⁶ 한 단어의 어원은 그 단어가 사용된 특정한 용례에서 그 의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diachronic) 방법 보다는 공시적인(synchronic) 관점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⁷ 무엇보다도 한 언어에서 대부

³ 성경 신학 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성경신학의 위기』,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13-89.

⁴ 이 시기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어휘 사전과 단어 연구에 집중하였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Kittel의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이다.

⁵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신학에 있어서 단어연구의 오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eter Cotterell and Max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9), 106-87.

⁶ Cotterell and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132. 예를 들어 한 단어 의미의 통시적 발전(diachronic development)은 그 단어 의미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사를 보여준다. 따라서 어원적인 의미로 성경 본문의 단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대착오적(anachronic)인 오류를 생성할 수 있다.

⁷ 통시적인 방법보다는 공시적인 접근으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논의해왔다. Moisés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분의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의미들의 영역, 즉 의미장(semantic field)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자는 본문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선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자의 과제는 자신의 사상을 본문의 단어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지 본문의 진술 내용만을 기술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과제는 저자의 의사소통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를 파악하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일관성 있고 자연스러운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자의 의사소통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안한다.

첫째, 단어가 사용된 장르(genre)는 저자의 의사소통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장르는 본문의 세계 안에서 저자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 전략(또는 규칙)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규칙이기 때문이다.⁸ 특히 시 장르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여러 은유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단어들의 전형적인 조합(combination) 또는 병치 배열(collocation)을 통해서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한다.⁹ 저자는 한 단어의 사용보다는 다른 단어와의 조합을 통하여 관용구를 만들어 전혀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동의어 또는 반의어와 비교, 대조를 통하여 저자의 단어 선택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¹⁰ 이를 위해 시적 구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평행법(의미론적, 구문론적, 음운론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G.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1), 64-92; Peter Cotterell and Max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131-32.

⁸ Branson L. Woodard, Jr. and Michael E. Travers, "Literary form and Interpretation," in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ed., D. B. Sandy and R. L. Giese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5), 40.

⁹ John H. Walton, "Principles for Productive Word Study," in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158-68.

¹⁰ Eugene A. Nida, *Signs, Sense, and Translation* (Pretoria, South Africa: Pretoria University, 1972), 85-86.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 저자의 의사소통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속한 본문의 역사적, 정경적, 문예적 문맥 또는 정황(context)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저자는 독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황적 근거들을 본문에 이미 포함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예적 문맥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따라서 본문의 인접 문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contextual meaning)를 파악하여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어의 여러 의미장 가운데 어떤 의미가 문맥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 저자가 사용한 단어는 어떤 다른 단어들, 구들, 개념들과 함께 동일시되거나 아니면 대조될 수 있는가?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전체 단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해해야 하며, 또한 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이 전체 단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 그 단락의 인접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특성상 단어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를 역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 Hapax legomenon).

3. 이사야 1-39장과 40-55장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3.1. 두 용어의 의미장(semantic field)

정의(^{מִצְדִּיק})와 공의(^{צְדִיק})란 용어는 주로 중언법(hendiadys)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주로 사회정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¹² 이 두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본문은 창세기 18:19이다. 월키

¹¹ G. Brown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46-50.

(Bruce K. Waltke)는 이 본문에서 사용된 두 용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사회 질서를 진전시키는 삶, 그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묘사한다”고 정의한다.¹³ 이처럼 두 용어의 원래적 의미는 주로 사회질서 또는 통치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이사야서 본문에 나타나는 정의(**צדקה**)와 공의(**יָשָׁר**)란 단어의 뉘앙스를 식별하기 전에 먼저 두 용어가 표현하는 가능한 의미장에 대해 열거할 필요가 있다. 정의(**צדקה**)란 용어는 구약에서 약 425회 정도 나타나며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1. 중재를 통한 결정, 법률적 결정, 2. 법률 소송, 3. 법률적 요청, 4. 순응, 일치, 적합, 5. 사회 정의, 6. 신적인 명령(율법).

공의(**יָשָׁר**)란 용어에는 여러 의미장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¹⁵: 1. 흠이 없는 행동, 정직, 2. (전존재의) 의, 3. (인간 재판관의) 정의, 4.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의 특징으로서의 정의, 5. (종교적인 태도로서의) 의, 경건, 6.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의, 7. 하나님의 구원, 승리 8. 신뢰할 만한, 진리, 9. 법률적 요청, 10. 사회 정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צדקה**)와 공의(**יָשָׁר**)란 두 용어는 여러 의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사야 56-59장에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יָשָׁר**)란 의미의 뉘앙스를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 1-39장과 40-55장에 나타난 이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¹²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 צדקה ויָשָׁר -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228. 특히 이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왕들(사회-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인격의 특징이다.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왕들이나 사회-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인격의 한 부분임을 나타낸다.

¹³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69.

¹⁴ Peter Enns, “צדקה,”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II: 1142-44. צדקה의 의미장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Osborne Booth (11가지), Even-Shoshan (7가지), Robert Culver (13가지), Rolf Knierim (16가지), J. L. Mays (3가지). 참고. Leclerc,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7.

¹⁵ David J. Reimer, “יָשָׁר,”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III: 744-69.

3.2. 이사야 1-39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이사야 1-39장 안에서 정의(**צדק**)는 16회, 공의(**יָסֶדֶק**)는 20회 정도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두 용어가 함께 병치 배열(collocation)로 사용된 경우도 10회 정도 된다.¹⁶ 이처럼 이사야 1-39장에는 두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각 용어가 사용된 본문의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첫째,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는 문맥에서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할 때 이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1:17, 21, 27; 3:10; 5:7; 10:2; 26:7; 33:15).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압제하였으며 유다 백성들의 삶속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정의(**צדק**)와 공의(**יָסֶדֶק**)의 삶이 없었다. 둘째, 이 용어들은 또한 백성들의 죄악과 상반 되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4:4; 5:16; 28:6, 17; 30:18; 33:5)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더러움을 심판하는 영(**רוח צדק**)으로 정결케 하실 것이다(4:4). 정의(**צדק**)와 공의(**יָסֶדֶק**)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의 한 부분이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원리이다. 셋째, 메시아적 왕의 종말론적인 공의로운 통치(9:7; 16:5; 32:1, 16, 17)를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¹⁷ 종말론적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의(**צדק**)와 공의(**יָסֶדֶק**)는 메시아적 왕의 통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다스림의 결과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다. 이사야 1-39장에서 사용된 두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규범에 따르는 인간들의 바른 행위와 하나님의 심판, 통치, 인격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¹⁶ 이사야 1-39장에서 나타나는 **צדק** - 1:17, 21, 27; 4:4; 5:7, 16; 9:7; 10:2; 16:5; 28:6, 17; 30:18; 32:1, 7, 16; 33:5. **יָסֶדֶק** (**צדק יָסֶדֶק**) - 1:21, 26, 27; 3:10; 5:7, 16; 9:7; 16:5; 24:16; 26:2, 7, 9, 10; 28:17; 32:1, 16, 17 (2x); 33:5, 15. **צדק**과 **יָסֶדֶק**가 함께 쓰인 경우 - 1:21, 27; 5:7, 16; 9:7; 16:5; 28:17; 32:1, 16; 33:5. **צדק**과 **יָסֶדֶק**가 함께 사용된 최초의 예는 창 18:19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의(**יָסֶדֶק**)와 공도(**צדק**)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신다.

¹⁷ Rolf P. Knierim,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110.

3.3. 이사야 40-55장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이사야 40-55장에서 정의(צדקה)는 12회 나타나며 공의(קדושה)는 19회 사용되었다.¹⁸ 이사야 40장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제가 변하면서 이사야 40-55장에서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의 의미의 뉘앙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사야 40-55장에서는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공의(קדושה)와 구원(יְשׁוּעָה)이 함께 나타난다(45:8; 46:13; 51:5, 6, 8). 첫째, 공의(קדושה)의 의미는 주로 구원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된다. 백성들은 완악하여 공의에서 점점 멀어지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קדושה)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다(51:5, 8; 53:11; 54:14, 17). 둘째, 의(צדקה)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율법의 뉘앙스를 나타낼 때도 있다(51:1, 4, 7). 셋째, 정의(צדקה)는 원고의 법률 소송(40:27; 54:17), 법적 질서(42:1, 3, 4), 재판(49:4; 53:8)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⁹ 이사야 40-55장의 중심 되는 강조점은 백성들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질서이며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의 의미의 뉘앙스는 구원적 의미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사용된다.

4. 이사야 56-59장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ושה)의 의미적 뉘앙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이사야 56-66장 전체보다는 이사야 56-59장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논문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사야 56-66장의 모든 본문을 주해 할 수 없다. 둘째, 이사야서 전체 본문 중 이사야 56-59장이 두 용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의미적 뉘앙스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

¹⁸ 이사야 40-55장에서 사용된 צדקה - 40:14, 27; 41:1; 42:1, 3, 4; 43:26; 49:4; 50:8; 51:4; 53:8; 54:17. קדושה (קדו) - 41:2, 10; 43:26; 45:8(2x), 23, 24, 25; 46:12, 13; 50:8; 51:1, 5, 7, 8; 53:11 (2x); 54:14, 17.

¹⁹ Knierim,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102, 109.

이사야 56-59장은 이사야 1-55장과 56-66장을 연결 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이사야 56-66장의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본문은 정의(**צדק**)와 공의(**מִשְׁפָּט**)란 용어 사용을 통하여 백성들의 실천 삶에 대한 요구와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동(主動)적인 구원이란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4.1. 이사야 56-66장의 구조

이사야 56-59장이 이사야 56-66장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사야 56-66장이 주전 5세기 중반에 제 3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하는 뉘(Duhm)의 가설 이후에 이사야 56-66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관점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문을 전체로 읽은 통일성의 측면을 무시해 버렸고 성경 주해에 치명적인 왜곡을 가져왔다.²⁰ 최근에는 신 문학적인 방법론(New Literary Criticism)의 출현과 함께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56-66장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전체 구조를 연구해왔다.²¹ 자세한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이사야 56-66장은 반복적인 단어와 전체 주제에 따라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본문의 문학적, 주제적, 신학적 관점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는데 도움을 주며 역사 비평적 접근법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여러 안목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사야 56-66장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²⁰ B. S. Childs, *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445. 역사비평학적 방법론은 이사야 56-66장 본문에 나타나는 애매모호한 언급들을 본문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들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결부시켜 본문의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²¹ Robert O'Connell, *Concentricity and Continuity: The Literary Structure of Isaiah* (JSOTSup., 18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4), 216; Grace I. Emmerson, *Isaiah 56-6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20. 이사야서 전체 통일성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이레서원, 2004), 17-172.

- A 56:1-8 예배를 위해 순종적인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으로 모음
- B 56:9-58:14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 악인들과 신실한 자들
- C 59:1-59:15a 공동체 탄식
 - D 59:15b-20 하나님의 보복: 신적인 전사(戰士)
 - E 60:1-22 시온의 영광스런 미래
 - Axis 61:1-11 구원의 기쁜 소식의 선포
 - E' 62:1-12 시온의 영광스런 미래
 - D' 63:1-6 하나님의 보복: 신적인 전사
 - C' 63:7-64:12 공동체 탄식
- B' 65:1-66:17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 심판과 구원
- A' 66:18-24 예배를 위해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으로 모음

이사야 56-66장은 중앙 집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사야 56:1-8은 이사야 56-66장의 서론적 기능을 하며 결론적 기능을 하는 이사야 66:18-24과 함께 전체 구조의 틀을 이루고 있다. 이사야 60-62장은 전체 구조에서 중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시온의 영광스런 미래를 제시한다. 이사야 56:9-58:14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사야 56:1-8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서로 다른 두 반응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65:1-66:17에 제시된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공동체의 탄식에 대한)과 대칭을 이룬다. 이사야 59:15b-20과 이사야 63:1-6은 신적인 전사(divine warrior)로 임하여 악인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사야 60-62장을 중심에 두고 수미쌍괄식 구조(inclusio)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 논의한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시적인 장르인 이사야 56-59장에 나타난 정의(**צדק**)와 공의(**קדש**)란 단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2. 이사야 56:1-8

상당수의 비평 학자들은 이사야 56:1-8을 독립된 개체로 이전 본문과 분리하려고 했으나 이사야 56:1-8은 이사야 1-55장과 함께 연결된 본문일 뿐 아

니라 앞으로 소개되는 이사야 56:9-66:24의 신학적, 주제적 배경을 제공한다. 특히 이사야 56:1에 나타난 정의(משפט)와 공의(צדקה)는 구원(יְשׁוּעָה)과 함께 이러한 전환적 기능(transitional function)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 용어들은 56:1에서 ABCB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A. משפט, B. צדקה, C. יְשׁוּעָה, B. צדק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전개된 단어들은 이사야 56:1을 이사야 1-55장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사야 56:1은 다음과 같다.

כֹּה אָמַר יְהוָה שְׁמְרוּ מִשְׁפָּט תִּשְׁאוּ צְדָקָה כִּי־רָצוֹנָה יְשׁוּעָתִי לָבוֹא וְצִדְקָתִי לְהוֹלִילָתִי: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1절).
---	--

1절에 나타난 **משפט**와 **צדקה**의 결합(AB 패턴)은 신적인 규범(율법)에 대한 순종적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로 이사야 1-39장에서 사용되었으며(1:21, 27; 5:16; 9:7; 16:5; 28:17; 32:1, 16; 33:5), **공의(צדקה)**와 **구원(יְשׁוּעָה)**의 결합(CB 패턴)은 대부분 이사야 40-55장에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주권적 구원을 의미한다(45:8, 21; 46:13; 51:5, 6, 8).²² 이렇게 쌍을 이루는 단어들은 서로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절에서 두 번 사용된 **צדקה**는 다른 단어들(**משפט**, **יְשׁוּעָה**)과 쌍을 이루며 하나님의 규범(율법)과 구원(의)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이는 한 동일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병치 배열(collocation)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예이다.

이사야 56:1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라는 권고(AB 패턴)는 주님의 임박한 구원(CB 패턴)과 더불어 소개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 56-59장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렇다면 이사야 56:1-8에서 사용된 **משפט**와 **צדקה**는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의 뉘앙스를 제

²² John N. Oswalt, "Righteousness in Isaiah Chapters 55-66," in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184-87; R. Rendtorff, "Isaiah 56:1 as a Key to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181-89.

시하는가? 이사야 56:1-8은 이사야 56-59장의 서론적 부분에 속하기에 이 두 용어를 본문의 전체 문맥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56:1-8은 메시지의 반복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를 이방인과 고자에게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I.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권고(1a)

다가오는 구원 약속(1b)

II. 고자들에 대한 권고(4절)

고자들에 대한 구원 약속(5절)

III. 이방인들에 대한 권고(6절)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약속(7절)²³

1절에서 שמר(지키다)를 지키고 מצוה(행하다)를 행하라는 권고는 שמר(지키다)와 מצוה(행하다)란 두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이 동사들은 56:1-8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2, 4, 6절). 특히 2절은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אשר יעשה צדקה וקדש)’라고 시작하면서 1절의 일반적 권고를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평행구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שמר שבת מולל // וְשָׁמַר יָדָיו מִכָּל עֲוֹן) 이를 통해 선지자는 제의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다.²⁴ 4절은 고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삶을 살라고 권고한다. 6절은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제안한다. 4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삶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3절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며, 둘째는 언약에 신실한 삶

²³ Polan,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57.

²⁴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456. 특히 악(עוון)은 의(צדק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윤리적이면 실천적인 행위와 관련된다.

이다.²⁵ 선지자는 안식일을 준수와 더불어 언약이란 새로운 요소를 4절과 6절에서 함께 소개하고 있다. 결국 본문은 정의(צדק)와 공의(קדש)의 삶을 안식일 준수와 언약적 신실함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많은 비평학자들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사야 56:1-8장의 역사적 배경을 포로 후기로(에스라-느헤미야)로 선정하고 이 시기에 나타난 사회적 계층의 갈등 구조 안에서 안식일 문제를 접근하였다.²⁶ 그러나 본문은 정확한 역사적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역사적, 사회적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와 언약과의 상관성을 살피기 위해 이사야 56:1-8과 주제적 언어적 상관성을 보이는 정경적 문맥인 출애굽기 31:12-1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31:13은 안식일(שבת)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대의 표징(מוֹפֵת)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출애굽기 31:17절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영원한 언약(ברית)과 관련을 지으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מוֹפֵת)이라고 언급한다. 더럼(Durham)은 출애굽기 31:12-17에 나타난 안식일 명령이 표징이란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²⁷

이스라엘의 예배의 방식에 대한 일련의 여호와와 규례에 대한 결론으로서 안식일 명령의 반복은(시내) 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와 가르침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의무적인 안식일 준수는 또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성막과 그 도구의 상징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임재의

²⁵ 안식을 준수와 언약을 굳게 잡는 삶은 4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구문론적으로는 서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다. וְשָׁמַרְתָּ אֶת-שַׁבָּתוֹ (4절) // בְּשִׁמְרַת שַׁבָּת מִלֵּל (6절); וְשָׁמַרְתָּ בְּרִיתִי (4절) // וְשָׁמַרְתָּ בְּרִיתִי (6절). 폴란(Polan)은 4절과 6절의 문장 끝에 나타나는 וְשָׁמַרְתָּ בְּרִיתִי 은 앞에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설명한다. Polan,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69.

²⁶ 헨슨(Hanson)은 제2 이사야의 이상주의적 제자들(Visionary Disciples)과 포로 후기의 압제하는 성직자 그룹(Hierocracy) 사이의 갈등 가운데 안식을 준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주장한다. P.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210-17. 쉬람(Schramm)은 사독 제사장 계열과 종교적 혼합 주의를 행하는 야웨스트들(YHWHists)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Brooks Schramm,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12-73.

²⁷ John I Durham, *Exodus*, WBC 3 (Waco, Tex.: Word Books Publisher, 1987), 413-14.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식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안식일 준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책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충성과 책임에 대한 표징이다.

이사야 56:1-8의 독특한 점은 언약 공동체의 범위가 심지어 고자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²⁸ 이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안식일 준수와 언약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4절과 6절에서 제시되는 권고의 구체적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4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참조. 렘 50:5, 스 2:15),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들이 되며(6절).

요약하면, 이사야 56:1-8의 전체 문맥이 제시하는 צדק(정의)과 קדש(AB 패턴)의 주된 뉘앙스는 안식일 준수로 특징되는 언약적 책임에 충실한 삶과 순종일 것이다. 그러면 언약적 책임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가까운 구원(קיום)과 קדש(CB 패턴)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5절)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되며 그 곳에서 주님은 이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다(7절). 물론 거룩한 산(시온)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룩한 산의 좀 더 넓은 의미는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2:2-4; 4:5; 8:18; 11:9; 18:7; 24:23; 25:6; 27:13; 30:29; 31:4).²⁹ 따라서 정의(צדק)와 공

²⁸ 신명기 23:1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한다. 또한 신명기 23:3-8은 이방인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 56:1-8에서 심지어 고자나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한다.

²⁹ Donald E. Gowan,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2000), 15; R. E. Clements, *God and Temple* (Oxford: Basil Blackwell & Mott, 1965).

의(עֲלֵמֵי)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인 וְיִשְׁעִי וְיִשְׁעִי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구원이란 신학적 주제는 이사야 57:13b, 58:8,9; 59:20; 60-62장에 다시 나타난다.

4.3. 이사야 56:9-57:21

이사야 56:1에서 사용된 עֲלֵמֵי는 이사야 57:1에서는 형용사 형태인 עֲלֵמִי으로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57:12에서는 עֲלֵמִי로 다시 사용된다. 이사야 56:9-57:21에서 사용된 עֲלֵמֵי עֲלֵמֵי의 의미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6:9-57:21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선지자는 이사야 56:9부터 이전 단락과 다른 갑작스런 주제를 소개한다. 이사야 56:1-8에서 제시한 권고와 구원의 약속과는 달리 이사야 56:9-12은 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방탕, 게으름,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고자와 이방인들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경, 짓지 못하며 탐욕으로 사로잡힌 개, 무지한 목자로 소개한다. 이사야 57:1-13에서도 선지자의 고발은 지속된다. 1-2절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공동체의 냉담함을 묘사하고, 3-13절은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자들을 무당의 자식과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으로 소개하면서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을 지적한다. 그러나 14-21절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악인들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약속하신다. 따라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에 대한 대조는 이사야 56장과 57장의 전체 문맥으로 드러난다.³⁰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사야 57:1에서 정관사와 함께 사용된 עֲלֵמִי은 의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사야 57:1, 2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인(עֲלֵמִי)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신실한 이들(עֲלֵמִי)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עֲלֵמִי)은 악인들(רָשָׁעִים) 앞에서 불리어간다.

³⁰ Childs, *Isaiah*, 469.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걷는 자들(צדק וְיִשְׁרָאֵל)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사야 57:1은 의인(צדיק)으로 시작하면서 56:9-12에서 언급된 부패한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며 57:1-24의 중심 단어임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사야 57:1에서 사용된 의인(צדיק)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을 가진 자들인가? 의인(צדיק)의 뉘앙스는 이와 평행구를 이루는 신실한 자들(אֱמֻנָא)이란 표현에서 좀 더 구체화 되며 또한 2절에서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른 길로 걷는 자들(צדק וְיִשְׁרָאֵל)이라고 묘사한다. 따라서 이사야 57:1에서 소개된 의인(צדיק)은 이사야 56:1에서 권고한 צדקה와 קדש를 인격과 삶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57:12에서는 56:1에서 사용된 קדש가 다시 나타난다. 이사야 57:12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네 공의(קדש)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עֲשָׂוִי)이 네게 무익하니라.³¹ 이 구절에서 네 공의(קדש)를 내가 보이리라와 네가 행한 일(עֲשָׂוִי)이 네게 무익하니라는 서로 의미적 평행구 (semantic parallelism)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네 공의는 네가 행한 일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 57:3-11의 전체 문맥에서 백성들이 행한 일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악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언급하면서 공의(קדש)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사야 56:1에서 권고한 공의(קדש)를 행하는 삶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지자는 오히려 백성들의 악한 삶을 풍자적(sarcasm)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장치로 공의(קדש)란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³² 따라서 12절에서 사용된 공의(קדש)란 단어의 뉘앙스는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에 대한 신랄한 풍자이다.

³¹ 사 57:12은 구문론적으로 약간 모호한 구절이다: וְאֵלֶּיךָ לֹא יִשְׁלָחֵם וְאֶת־עֲשָׂוִי וְאֶת־מִצְעָדָם וְאֶת־מִצְעָדָם וְאֶת־מִצְעָדָם 왜냐하면 וְאֶת־עֲשָׂוִי가 וְאֶת의 직접 목적으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וְאֶת־עֲשָׂוִי의 주어로 기능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의 가능성을 택하여 해석한다.

³² Polan,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145. 사56:1에서 קדש와 צדקה가 함께 사용된 것처럼 사 57:12에서도 וְאֶת־עֲשָׂוִי와 וְאֶת־מִצְעָדָם는 함께 사용되었다는 언어적 관련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4. 이사야 58:1-14

이사야 58:1-13절에서는 **נָשָׂא**와 **נָקָה**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어들은 2절과 8절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를 나타내며 본문의 전체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 58장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 백성들의 불평, 권고, 구원의 약속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메시지가 서로 복잡하게 얹혀 있다. 이사야 58:1-14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금식에 대한 것이며(1-12절)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13-14절)이다.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시지 않음을 인하여 불평한다(3절).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금식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참 금식의 의미를 설명하신다(4-12절). 만일 백성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과 진심으로 돌본다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13, 14절). 이사야 58장에 나타난 이러한 주제의 흐름은 **נָשָׂא**와 **נָקָה**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제공한다. 이사야 58:2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דֶּרֶךְ**)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נְקָה**)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מִצְוָה**)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פֶּתַח-מִשְׁפָּט**)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קָרְבָּה**)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은 교차 대구법(chiasm)을 사용하여 두 용어를 강조한다. A. **נָקָה** B. **נָשָׂא** B.' **נָשָׂא** A.' **נָקָה** 2절에서 소개되는 **נָשָׂא**의 정확한 의미의 뉘앙스는 약간 애매모호하다. 몇몇 학자들은 2절에서 **נָקָה**와 함께 쓰인 **נָשָׂא**를 56:1과 연관성 가운데 이해하여 **נָשָׂא**를 정의(justice)로 번역하였다.³³ 그러나

³³ Leclerc,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140; Polan,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194; John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Tex.: Word Books, 1987), 268.

영(E. J. Young)은 판단(judgment)으로 번역하였으며,³⁴ 차일즈(B. S. Childs)는 규례로 이해했다.³⁵ 이사야 58:2에 나타난 קדש와 צדקה를 이사야 56:1와 연관시켜 이해했던 몇몇의 학자들의 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사야 56:1은 이사야 56-59장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야 58:2에 나타난 צדקה의 뉘앙스는 정의보다는 규례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참조 사 42:4; 51: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절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의 허물(חַטָּאת)과 죄(עֲוֹנוֹת)를 크게 외쳐 알리라고 명한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백성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이라 하며 아이러니(irony)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사야 58장은 주님의 길을 구하는 백성들(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금식과 안식일 같은 제의적 규례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실천적 삶과 순종이 없이 외식적으로 금식에 관한 규례를 행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들은 의(קדש)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צדקה)를 버리지 않는 백성들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사야 58장 전체 문맥에서 볼 때 2절에서 사용된 צדקה의 뉘앙스는 규례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2절에 사용된 מִשְׁפָּטֵי צְדָקָה는 의로운 판단(righteous judgments)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קדש)를 행하고 규례(צדקה)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판단(מִשְׁפָּטֵי צְדָקָה)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그들은 이사야 56:1에서 약속한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58:8에 사용된 공의(קדש)는 참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이사야 58: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³⁴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72), 415.

³⁵ Childs, *Isaiah*, 477. 개역 개정판 성경도 צדקה를 규례로 번역하였다.

³⁶ Jan L. Koole, *Isaiah III: Isaiah 56-66* (Leuven, Belgium: Peeters, 2001), 127. 참조 מִשְׁפָּטֵי צְדָקָה는 시편 119:7, 62, 106, 164에서 주로 ‘의로운 규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하면 네 빛(אֹרֶךְ)이 새벽 같이 비칠(אֶרְבֹּץ) 것이며
 네 치유(רִפְיָהּ)가 급속할(תִּצְמַח) 것이며
 네 공의(צְדִיקָה)가 네 앞에 행하고(יֵלֵךְ)
 여호와와 영광(כְּבוֹד)이 네 뒤에 호위(יִשְׁמְרֶנּוּ)하리니

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묘사하기 위해 시적인 장르 안에서 빛과 치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말라기 4:2). 또한 8절은 두 번의 교차 대구법(chiasm)을 사용하여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A. יָבִיטָה B. אֹרֶךְ B'. אֶרְבֹּץ A'. תִּצְמַח A. יֵלֵךְ B. צְדִיקָה B'. כְּבוֹד A'. יִשְׁמְרֶנּוּ 특히 צְדִיקָה와 כְּבוֹד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론적 평행법은 צְדִיקָה의 의미가 כְּבוֹד로 진행됨을 나타내면서 그 의미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구원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의와 영광으로 둘러싸인다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나타난다. 이 사야 58장에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צְדִיקָה는 이사야 56:1에 나타난 패턴과 비슷하다. 이사야 56:1에서 צְדִיקָה의 의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적 삶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사야 58장에서도 צְדִיקָה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의 뉘앙스를 각각 나타낸다.

4.5.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은 צְדִיקָה와 נִשְׁמָה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며(נִשְׁמָה - 4, 8, 9, 11, 14, 15절; צְדִיקָה - 4, 9, 14, 16, 17절), 이 두 용어가 시적 장르 속에서 여러 이미지 언어와 함께 이사야 59장의 전체 주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두 용어의 뉘앙스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야 59장 전체 본문을 세 부분(1-8, 9-15a, 15b-20절)으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4.5.1. 1-8절

1-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1, 2절; 사50:2). 따라서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주로 죄와 관련된 단어이다: נִחֵיכֶם(너희 죄, 2절), עָוֹן(죄악, 3절), גִּזְלָה(거짓, 3절), עֲדֵלָה(악독, 3절), שָׁוָא(거짓, 4절), עָוֹן(악행, 4절), צָרָה(죄악, 4절, 6절, 7절), חֲסִידָה(포악, 6절), רָע(행악, 7절). 이와 같은 단어들은 이사야 56:1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악으로 깊게 물들어 있으며 백성들의 생각과 모든 삶의 양식은 거짓과 행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4절은 특히 법정적 불의를 지적하면서 공의(צדק)대로 소송하는(קָרָא) 자도 없고 진실하게(בְּאֵמֶנֶת) 판결(שָׁפַט)하는 자도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קָרָא는 법정에 소송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함께 사용된 קָרָא(인간 사회에서) 법률적 공의를 의미한다.³⁷ 이는 바로 이어지는 שָׁפַט(판결하다)라는 용어에 의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법정이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출산한다. 8절은 백성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צדק)가 없다고 언급한다. 8절에 나타난 정의는 이사야 56:1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צדק)와 그 뜻을 같이 한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אֵת הַדֶּשֶׁת הַזֶּה נִסְתָּרָה(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와 대조적인 의미를 통해 더욱더 확인된다. 1-8절에서 소개된 백성들의 죄악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צדק)의 삶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낸다. 특히 4절과 8절에서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정 불변화사(negative particle) לֹא는 공동체 가운데 공의의 부재를 수사학적으로 강조한다: לֹא קָרָא בְּצֶדֶק(4절); לֹא שָׁפַט בְּאֵמֶנֶת(4절); לֹא שָׁפַט בְּמִשְׁעָלָהּ(8절). 1-8절에서 백성들의 죄악된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 정의(צדק)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한 삶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된 현실에 대한 선지자적 고발이 1-8절의 주된 내용이라면

³⁷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514. קָרָא가 ‘법정에 소환하다’라는 의미로 욥 9:16; 13:22에서도 사용되었다.

9-15a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약간 변한다.

4.5.2. 9-15a절

9-15a절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한 공동체의 고백이다. 이는 9-15a절에서 인칭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바뀐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9-15a절이 앞에서 소개한 선지자적 고발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임을 9절을 시작하는 **לְכֵן**(그러므로)이란 접속사를 통해 제시한다.³⁸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한 공동체의 암울한 현실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담을 더듬는 맹인 그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곰과 비둘기에 비유한다. 이 단락의 특이한 점은 정의(**צְדִיקָה**)와 공의(**מִשְׁפָּט**)의 반복적인 사용이다.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לְכֵן**) 정의(**צְדִיקָה**)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מִשְׁפָּ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אוֹר**)을 바라나 어둠(**חֹשֶׁךְ**)뿐이요
밝은 것(**נוֹרָא**)을 바라나 캄캄한(**חֹשֶׁךְ**) 가운데에 행한다.

9절은 결론적인 접속사 그러므로(**לְכֵן**)와 함께 정의(**צְדִיקָה**)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מִשְׁפָּ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즉 앞 단락에서 언급한 공동체 죄악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그들에게서 멀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9절에서 사용된 정의(**צְדִיקָה**)와 공의(**מִשְׁפָּט**)는 구원적인 뉘앙스가 있다.³⁹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줄 교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의(**צְדִיקָה**)와 공의(**מִשְׁפָּט**)의 구원적인 의미의 뉘앙스는 9절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들이 더욱더 뒷받침해준다. 빛(**אוֹר**)과 밝은 것(**נוֹרָא**)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며(사2:5; 9:1,2; 60:1,2), 특히 빛(**אוֹר**), 어둠(**חֹשֶׁךְ**), 캄캄한(**חֹשֶׁךְ**)은 이사야 57:10에서

³⁸ Oswalt, 519.

³⁹ Oswalt, 519; Young,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519.

참 금식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임재)을 약속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들이다.

9절에서 소개된 정의(צדקה)는 다시 11절에서 구원(קדש)과 함께 평행구로 사용되어 이 용어의 구원적 뉘앙스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11b절은 9b절과 구문적(syntactic), 의미적(semantic) 평행구를 이루며 공동체 안의 구원의 부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2절부터 15b절은 구원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진 이유를 다시 한 번 서술하고 있다. 12절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ր(왜냐하면)로 시작하여 앞 구절들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12절과 13절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들은 죄악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חֲטָא(허물), רָשָׁע(죄), עוֹנֵן(죄악). 백성들이 이사야 56:1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14절에서 다시 나타내는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를 소개하고 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צדקה)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קדש)가 멀리 섰다.

왜냐하면(ր) 진리(אמת)가 거리에 앞드러지고 정직(ישר)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나타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스쿨리온(Scullion), 영(Young), 쿨라(Koole)는 14절에 나타난 이 용어들이 구원적(salvific)인 뉘앙스를 갖는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오스왈트(Oswalt), 베스터만(Westermann)은 백성들의 행위적(behavioral)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는 구원적(salvific)인 뉘앙스가 강해 보인다. 왜냐하면 14절은 11,12절의 경우와 같이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접속사 ր를 사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백성들에게 진리와 정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15a는 백성들

⁴⁰ Scullion, “*ṣedeq-ṣedāqah* in Isaiah cc. 40-66,” *UF* 3 (1971): 345; Koole, *Isaiah III: Isaiah 56-66*, 195.

가운데 진리가 없어져서 악에서 떠난 자들이 탈취를 당한다고 기록하면서 공동체의 죄악 된 현실을 다시 언급한다(참조. 사 57:1).

9절, 11절,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의(מִשְׁפָּט)와 공의(צְדָקָה)는 주로 구원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서 멀다(רָחֹק)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하여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מִשְׁפָּט מֵעֵינֵינוּ, 9절);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고(לִישׁוּעָה רָחֹקָה מֵעֵינֵינוּ, 11절); 공의가 멀리 섰으며(וְצְדָקָה מֵרָחוֹק, 14절). 이사야 56:1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면 구원이 가까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무색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존적인 모습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따라서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 내의 구원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15b-20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4.5.3. 15b-20절

15b-20절은 죄악의 편재와 구원의 부재로 인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15b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된 실존의 모습을 살피셨고 이들 가운데 공의가 없는 것(כִּי־אֵין מִשְׁפָּ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언급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공의(מִשְׁפָּט)의 뉘앙스를 살피기 위해 15b와 16a의 구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יְהוָה יִרְאֶה(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יִרְעֶה בְּעֵינָיו כִּי־אֵין מִשְׁפָּט(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5b)

יִרְאֶה כִּי־אֵין אִישׁ(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כִּי אֵין מִשְׁפָּט זָכַר(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16a)

15b와 16a는 구문적, 의미론적 평행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각 행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כִּי־אֵין은 이 행들을 하나로 묶어 준다. 또한 15b의 정의가 없는 모습을 16a에서는 사람 즉 중재자가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15b의 내용을 보충해준다. 여기에서 중재자는 15a에서 언급한 상황

에 대한 중재자 이다. 즉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아줄 중재자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5b에서 사용된 정의(צדקה)의 뉘앙스는 공동체의 최악의 현실을 바로 잡아줄 구원 또는 교정(redress)의 뉘앙스가 있다. 정의(צדקה)의 이와 같은 뉘앙스는 16b에서 사용된 ‘구원하다(נצח)’와 ‘공의(קדש)’란 단어들에 의해 더욱더 확증된다. 정의가 부재한 공동체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공의(קדש)를 의지하고 구원을 베푸신다. 17절은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적인 전사(the Divine Warrior)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의(קדש)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נצח)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צד)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קנא)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신적인 전사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קדש)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נצח)을 투구로 쓰시고 오신다. 본문에서는 공의(קדש)와 구원(נצח)이란 단어가 병치 배열(collocation)로 소개된다. 이는 이사야 56:1에서 소개한 구원의 약속과 동일한 용어들의 사용이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공의(קדש)는 구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적인 전사가 가져오는 구원(נצח)은 보복(צד)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구원의 속성을 좀더 상세하게 밝혀준다. 본문은 신적인 전사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첫째, 행악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다(18절). 악인의 제거와 심판이 구원의 한 측면이다. 악인들에게 임할 신적인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보복은 이사야 63:1-6에서 다시 한 번 소개된다. 둘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들(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자(גואל)로 임하신다(20절). 죄를 떠나는 자들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이는 이사야 60-62장에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란 신학적인 주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4.6. 신학적 함의

이사야 56-59장에 나타난 정의(**צדקה**)와 공의(**צדק**)의 의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함의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정의(**צדקה**)와 공의(**צדק**)를 실천하는 언약적 삶을 권고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되는 구원을 약속하셨다(56:1).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악 때문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56:9-57:13), 외적 종교적 일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적 기준과 거리가 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금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돌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만연한 죄악은 공동체를 구원이 부재한 절망의 현실로 몰아가고 있다(59:1-15). 언약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צדקה**)와 공의(**צדק**)의 삶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צדק** 또는 **צדקה**)은 이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죄악으로 물든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공의(**צדק**)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전사로 임하신다(59:16,17). 신적인 전사이신 하나님의 임하심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하신다(59:18-21).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악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이사야 56-59장은 정의(**צדקה**)와 공의(**צדק**)란 용어의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를 통해 죄악으로 인한 백성들의 전적인 부패와 함께 하나님의 주동(主動)적 구원이란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본 소고는 이사야 56-5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의(**צדקה**)와 공의(**צדק**)

의 의미적 뉘앙스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란 용어는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먼저 이사야 1-39장에서는 이 용어가 나타내는 주된 의미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준한 실천적인 삶 또는 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되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사야 40-55장에서 사용된 이 용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묘사한다.

이사야 56:1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1-39장의 신학적인 주제와 40-55장의 신학적인 주제를 요약하며 이사야 56-59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사야 56:1-8에 소개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는 안식일 준수와 함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에 신실한 삶과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구원(קדש)과 함께 사용된 공의(קדש)는 구원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다. 동일하게 사용된 공의(קדש)는 함께 사용된 용어에 따라 행위적인 의미와 구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사야 57:12에서 사용된 공의(קדש)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들의 악한 행위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58장에서 사용된 공의(קדש)는 이사야 56:1에 나타난 패턴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실천적 삶(2절)과 하나님의 구원(8절)의 뉘앙스로 사용되었으며 2절에서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의(צדקה)는 규례와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사야 59장은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란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이며 이사야 56:1에서 제시된 패턴과 같이 행위적 의미(8절)와 구원적 의미(9, 11, 14, 15, 16, 17절)가 나타난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학이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란 용어의 전개를 통하여 드러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의(צדקה)와 공의(קדש)란 용어는 이사야서를 통전적으로 읽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 용어들이 표현하는 여러 의미적 뉘앙스의 변화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의사소통 의도와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arr, James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Booth, Osborne. "The Semantic Development of the Term *mišpāt*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942): 105-10.
- Bovati, Pietro. *Re-Establishing Justice: Legal Terms, Concepts and Procedures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05. Sheffield: JSOT Press, 1994.
- 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Childs, B. 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박문재 역. 『성경신학의 위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_____. *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Clements, R. E. *God and Temple*. Oxford: Basil Blackwell & Mott, 1965.
- Cotterell, Peter and Max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9.
- Durham, John I. *Exodus*. WBC 3. Waco. Tex.: Word Books, 1987.
- Emmerson, Grace I. *Isaiah 56-6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 Enns, Peter. "מִשְׁפָּט."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II: 1142-44.
- Gowan, Donald E. *Eschatology in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2000.
- Gray, Mark *Rhetoric and Social Justice in Isaiah*. New York: T & T Clark,

2006.

Hanson, P. D.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Kendall, Daniel “The Use of Mishpat in Isaiah 59.”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6 (1984): 391-405.

Knierim, Rolf P.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Eerdmans, 1995.

Koole, Jan L. *Isaiah III: Isaiah 56-66*. Leuven, Belgium: Peeters, 2001.

Leclerc, Thomas L. *Yahweh is Exalted in Justice: Solidarity and Conflict in Isaiah*. Minneapolis: Fortress, 2001.

Nida, Eugene A. *Signs, Sense, and Translation*. Pretoria, South Africa: Pretoria University, 1972.

O'Connell, Robert. *Concentricity and Continuity: The Literary Structure of Isaiah*. JSOTSup 18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4.

Olley, J. W. “Notes on Isaiah XXXII 1, XLV 19, 23 and LXXIII 1.” *Vetus Testamentum* 33 (1983): 446-53.

Osborne, G.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1.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_____. “Righteousness in Isaiah Chapters 55-66.” In *Writing and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Eds. Graig C. Broyles and Craig A. Evans. Leiden; New York: Brill, 1997, 177-91.

Polan, Gregory J. *In the Ways of Justice toward Salvation*. New York: Peter Lang, 1986.

Rad, G. von. “Faith Reckoned as Righteousness.”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London: SCM Press, 1984, 125-30.

- _____. “‘Righteousness’ and ‘Life’ in the cultic Language of the Psalms.”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London: SCM Press, 1984, 243-266.
- Rendtorff, 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and Ed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46-69.
- _____. “Isaiah 56:1 as a Key to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and Eds.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81-89.
- Reimer, David J. “צִדִּיק.”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VanGem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III: 744-69.
- Reventlow, Henning Graf and Yair Hoffman. eds.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Sheffield: JSOT Press, 1992.
- Schramm, Brooks.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Scullion, J. J. “*ṣēdeq-ṣedāqah* in Isaiah cc. 40-66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tinuity in Meaning Between Second and Third Isaiah.” *Ugaritforschungen* 3 (1971): 335-48.
- Silva, Moisés.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Walton, John H. “Principles for Productive Word Study.” In *A Guide to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Ed. Willem A. VanGem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158-68.
-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Watts, John D. W. *Isaiah 34-66*. WBC 25. Waco, Tex.: Word Books, 1987.
- Weinfeld, Moshe. “‘Justice and Righteousness’ -משפט וצדקה-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Sheffield: JSOT Press, 1992, 228-46.

Whitely, C. F. “Deutero-Isaiah’s Interpretation of *šedeq*.” *Vetus Testamentum* 22 (1972): 469-75.

Woodard, Branson L., Jr. and Michael E. Travers, “Literary form and Interpretation.” In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Eds. D. B. Sandy and R. L. Giese.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5, 29-43.

Young, E. J.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72.

장세훈.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 서울: 이레서원, 2004.

Abstract

Justice(משפט) and Righteousness(צדקה) in Isaiah 56–59: An Exegetical Approach to the Meaning

Lee, Hee-Sung

This study explores the variations on the meaning of the terms justice(משפט) and righteousness(צדקה) in Isaiah 56-59 and discusses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Biblical Theology Movement emerged in North America and Europe(1940-1960), there was an attemp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word by analysing its etymology. However, this method has resulted in anachronistic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word. Thus, synchronistic approach is preferred rather than diachronic one in deciphering the meaning of the word and the interpreter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context where the term occurs.

The two terms justice(משפט) and righteousness(צדקה) appear in Isaiah 56-59, expressing various nuances of the meaning within the text. In Isaiah 56:1-8, the meaning of justice(משפט) and righteousness(צדקה) is related with the life of the covenant responsibility manifested in faithful keeping of the Sabbath and God's promised salvation(the collocation of **צדקה** and **יְשׁוּעָה**). The term **צדקה** in Isaiah 56:9-57:21 means the sarcasm of the wicked lifestyle of the people who are indulged in the idolatry and do not fear of the Lord(57:12). The term **משפט** used in Isaiah 58 expresses the cultic regulations which the people practice hypocritically(v. 2) and **צדקה** denotes the promised salvation to those who practice the true

fasting(v. 8). In Isaiah 59 משפט expresses the faithful lifestyle which God requires(v. 8) and God's salvation(vv. 9, 11, 14 - with צדקה 15, 16, 17). Particularly, צדקה denotes the salvific nuance in collocation with the term salvation(ישועה). The two terms משפט and צדקה mean the faithful lifestyle to God's covenant(the practical human behavior) and God's salvation. The theology of God's salvation and human responsibility is expres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meaning of the two terms.

The two terms justice(משפט) and righteousness(צדקה) contribute to not only the holistic reading of Isaiah, but the development of the theology of Isaiah through the various nuances of the meaning as well.

Key-Words: Justice, Righteousness, Salvation, Semantic Field, Isaiah, Collocation, Contextual Meaning, Semantic Nuance